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키움증권

미 증시, 마이크론 실적, 엘런 경기 연착륙 발언 등 상승 마감

미국 증시 리뷰

26일(목) 미국 증시는 단기 고정 부담으로 장중 변동성은 상존했으나, 마이크론의 어닝 서프라이즈, 중국 경기 부양책 효과, 엘런의 경기 연착륙 발언에 힘입어 3대 지수는 상승 마감(다우 +0.62%, S&P500 +0.40%, 나스닥 +0.60%)

미 상무부에서 발표한 계절 조정 기준 2분기 GDP는 전기 대비 연율 3.0% 증가하며 잠정치(3.0%)와 동일한 수치 기록. 금번 2분기 GDP 수치는 1분기 GDP 확정치(+1.6%) 대비 약 2배가량 개선된 수치. 집계측에 따르면 금번 GDP 성장률은 민간 재고 투자와 연방 정부 지출이 견인한 반면, 비거주 고정투자와 수출은 부진하였다는 점을 언급. 한편, 애틀란타 연연의 GDP 추정 모델에 따르면 3분기 성장률도 2분기와 유사한 2.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한편, 미 노동부에서 발표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건수는 계절 조정 기준 직전주보다 4천명 하락한 21.8만명으로 집계. 변동성이 덜한 4주 이동평균 실업보험 청구건수 또한 직전주 대비 3천명 가량 감소한 22.4만 명으로 집계. 예상 대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적게 집계된 영향으로 경기 침체 내러티브 완화되며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3.8%대까지 상승.

특징 종목을 살펴보면, 마이크론의 긍정적인 실적 영향으로 전반적인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47%), 슈퍼마이크로 컴퓨터(-12.1%)는 회계 조작 이슈로 법무부가 조사를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급락. 이에 슈퍼마이크로향 매출 비중이 높은 엔비디아(+0.43%)도 장중 변동성 확대. 한편, 중국의 연이은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알리바바(+10.1%), 핀둬둬(+13.6%) 등 중국 소비주 급등세 시현.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이 날 미 증시는 긍정적인 경기 지표에 힘입어 상승 출발. 미국의 2분기 GDP는 연율 3%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간 신규실업 청구건수는 21.8만 건으로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 미국 경기 지표에 대한 증시 민감도가 높아진 가운데 해당 지표는 시장 참여자로 하여금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를 대폭 완화시켜줌.

엘런 재무 장관 또한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 지표는 현재 미국 경기가 연착륙을 향하고 있다고 언급.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을 높였던 미국 경기 침체 내러티브가 점차 약화되는 점은 긍정적 요인. 이제는 10월 초 발표될 미국의 고용보고서와 ISM 제조업 PMI에 시선이 쏠릴 것으로 판단. 해당 지표들도 양호한 흐름을 보일시 미국 증시는 재차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

26일(목) 국내 증시는 견조한 AI 수요를 시사하는 마이크론 호실적에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오후 들어 중국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추가적인 재정 부양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폭 확대하며 양 시장은 상승 마감(코스피 +2.90%, 코스닥 +2.62%)

금일 국내 증시는 글로벌 매크로 불확실성이 축소된 가운데 전일 미 증시에서 반도체, 중국 소비주 중심의 강세 등에 힘입어 상승 출발할 것으로 전망. 다만, 전일 리스크온 심리가 대폭 개선된 영향으로 시총이 큰 반도체, 2차전지, 금융 등 대다수 업종이 동시다발적으로 상승하였지만 금일에는 업종별 차별화 형국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 특히, 외국인의 반도체 업종 순매수 기조가 금일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주목해야할 필요.

전일 증시의 특징적인 점은 위험선호 심리가 대폭 개선되며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는 점(상해종합 +3.61%, 항셍 +4.16%, 니케이225 +2.79%, 대만 가권 +0.43%). 일본 증시는 마이크론의 회계연도 4분기 호실적과 엔달러 환율 상승에 영향을 받으며 반도체주 중심으로 대폭 상승. 반도체 비중이 높은 대만 증시도 AI 업종 강세에 힘입어 상승했으나, 레거시 제품의 약세 우려 속 후반부 상승폭을 일부 반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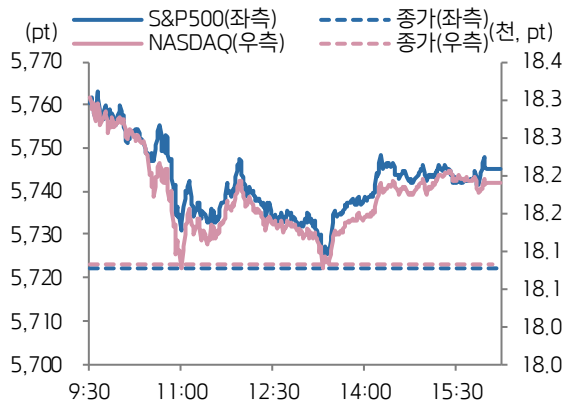
아시아 증시 중 가장 영향력이 높았던 곳은 바로 중국 증시. 정치국 회의에서 당국이 부동산 침체 극복, 소비 촉진 등을 언급하며 추가적인 재정 정책을 시사한 이후 상해종합지수는 3,000선 회복. 이에 경기 부양 기대감 지속되며 중국 부동산주와 소비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고, 중국 당국이 최대 1조위안의 자본을 국영은행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금융주도 큰 폭 상승. 특히, 지속되는 중국의 경기부양책은 국내를 비롯한 글로벌 주식시장 및 원자재 시장에 혼풍으로 작용하는 상황.

한편, 국내 증시에서도 마이크론 호실적 영향으로 그간 순매도 일관세를 보여왔던 외국인의 반도체 수급 방향성이 순매수로 전환. 마이크론 어닝콜에서 AI 산업 발전에 따른 HBM의 견조한 수요를 확인하며 최근 반도체 다운사이클에 대한 우려를 대폭 완화. 전반적인 반

도체 강세(+5.4%)가 지속된 가운데 업종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4.02%)와 SK하이닉스(+9.44%) 주가 급등. 특히, SK하이닉스는 12단 HBM3E 양산에 돌입하고 연내 엔비디아에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외국인 수급을 중심으로 상승폭 확대. 다만, 외국인의 삼성전자 매도 우위 현상은 이 날에도 나타나며 15거래일 연속 순매도 지속. 여전히 외국인의 반도체주 투자 방향은 레거시보다는 AI 중심의 HBM 관련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방증. 10월 초에 삼성전자의 잠정실적 발표가 분위기 반전을 이끌 수 있는지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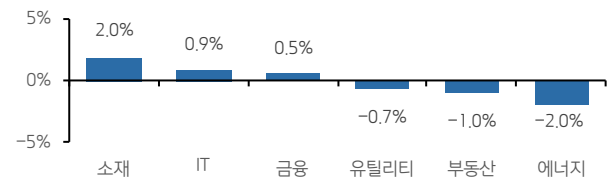
또한, 미국 하원에서 중국 디스플레이 제재 촉구 서안을 국방부에 보냈다는 소식에 반사이익 기대감이 반영된 영향으로 디스플레이(+7.1%) 업종 급등. 최근 바이오 업종의 상승 요인 중 하나도 중국 기업 제재를 목적으로 한 생물보안법이었다는 점을 감안시, 미중 패권 경쟁이 가져올 국내 증시의 반사 이익도 지속적으로 주목해볼 필요. 그 외에 은행(+4.6%), 증권(+4.1%), 보험(+3.0%) 등 금융 업종 전반이 강세를 보이며 전일 낙폭을 회복. 밸류업 지수에 미편입된 금융주의 저가매수세가 즉각 유입된 점은 주주환원 테마의 중장기적 투자심리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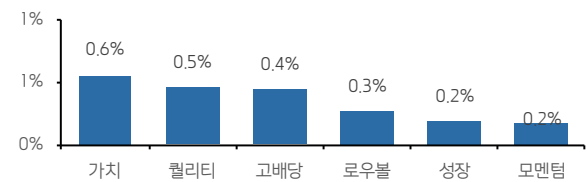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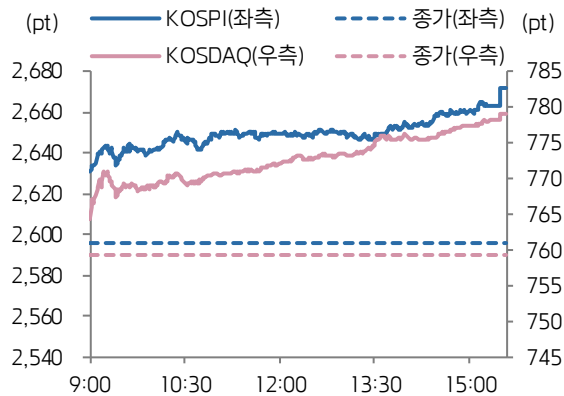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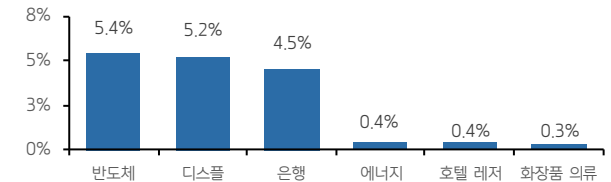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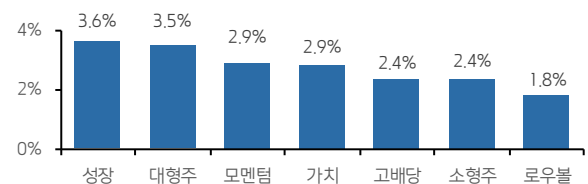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227.52	+0.51%	+18.62%	GM	45.81	+0.17%	+28.57%
마이크로소프트	431.31	-0.19%	+15.32%	일라이릴리	909.32	-1.65%	+56.75%
알파벳	162.73	+0.77%	+16.78%	월마트	79.92	-1.82%	+53.56%
메타	567.84	-0.08%	+60.91%	JP모건	209.78	-0.2%	+25.5%
아마존	191.16	-0.71%	+25.81%	엑손모빌	112.80	-1.72%	+15.72%
테슬라	254.22	-1.09%	+2.31%	세브론	141.99	-1.38%	-1.71%
엔비디아	124.04	+0.43%	+150.53%	제너럴일렉트릭	79.92	-1.8%	+53.6%
브로드컴	178.09	+1.46%	+61.26%	캐터필러	390.96	+3.36%	+33.87%
AMD	167.49	+3.38%	+13.62%	보잉	154.58	+1.55%	-40.7%
마이크론	109.88	+14.73%	+28.99%	넥스트에라	83.46	-1.4%	+40.5%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2,671.57	+2.9%	+0.61%	USD/KRW	1,318.00	-1.35%	+2.33%
코스피200	356.44	+3.45%	-0.43%	달러 지수	100.56	-0.35%	-0.76%
코스닥	779.18	+2.62%	-10.08%	EUR/USD	1.12	+0.4%	+1.25%
코스닥150	1,322.43	+3%	-5.1%	USD/CNH	6.97	-0.85%	-2.14%
S&P500	5,745.37	+0.4%	+20.45%	USD/JPY	144.81	+0.04%	+2.67%
NASDAQ	18,190.29	+0.6%	+21.18%	채권시장			
다우	42,175.11	+0.62%	+11.9%	가격	DTD(bp)	YTD(bp)	
VIX	15.37	-0.26%	+23.45%	국고채 3년	2.810	-0.2bp	-33.5bp
러셀2000	2,209.87	+0.57%	+9.02%	국고채 10년	3.000	+0.3bp	-17.5bp
필라. 반도체	5,310.50	+3.47%	+27.18%	미국 국채 2년	3.629	+6.9bp	-62.1bp
다우 운송	16,083.66	+0.41%	+1.16%	미국 국채 10년	3.796	+1.1bp	-8.3bp
상해종합	3,000.95	+3.61%	+0.87%	미국 국채 30년	4.131	-0.9bp	+10.3bp
항생 H	7,086.70	+4.75%	+22.85%	독일 국채 10년	2.183	+0.8bp	+15.9bp
인도 SENSEX	85,836.12	+0.78%	+18.82%	원자재 시장			
유럽, ETFs				가격	DTD(%)	YTD(%)	
Eurostoxx50	5,032.59	+2.35%	+11.31%	WTI	67.67	-2.9%	-4.22%
MSCI 전세계 지수	850.69	+0.84%	+17.01%	브렌트유	71.60	-2.53%	-7.06%
MSCI DM 지수	3,720.51	+0.67%	+17.4%	금	2,694.90	+0.38%	+24.76%
MSCI EM 지수	1,163.38	+2.34%	+13.64%	은	32.03	+1.03%	+32.96%
MSCI 한국 ETF	67.08	+5.87%	+2.37%	구리	458.10	+3.46%	+17.75%
디지털화폐				BDI	2,016.00	+0.1%	-3.72%
비트코인	64,678.84	+1.87%	+52.16%	옥수수	413.25	-0.48%	-17.92%
이더리움	2,631.90	+1.99%	+15.32%	밀	584.25	-0.85%	-12.67%
				대두	1,041.00	-1.16%	-16.44%
				커피	273.90	+1.78%	+45.46%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9월 26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서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